

성폭력수사 경찰의 수사행동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결정요인 :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이명신**·이계민***

초 록

본 연구는 성폭력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중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역할을 조사하였다.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성폭력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관 112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검증 결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중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되었다. 임무인식이 높을수록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이 증가되었다. 그러나 임무인식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실천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은 정보제공을 증가시키고, 정보제공은 형사절차설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가 감소된 반면, 형사절차설명이 증가될수록 합의중용이 증가되었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피해자보호결여는 과잉수사를 증가시키고, 과잉수사는 합의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공정성 실천을 증진하고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감소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 변화를 위한 특화 교육, 공정성 실천 의무화를 위한 수사체계 확립, 수사행동의 자가 사정체계 구축, 이중책무에 대한 지원, 성인여성 피해자를 위한 전담수사팀과 표준화된 수사지침 확립의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주제어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에 대한 편견, 임무인식, 공정성 실천, 이차피해 수사행동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3S1A5A2A03045238).

** 제1저자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여성연구소 운영위원(wellee@gnu.ac.kr)

*** 교신저자 : 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gyemin@gnu.ac.kr)

I. 서론

성폭력은 모든 문화, 지역에 널리 퍼져 발생되고 있는 범죄로(McGregor et al., 2009 : 23), 미국 여성의 1/4은 18세 이전에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으며(Rich & Seffrin, 2014 : 137), 캐나다에서도 성인시기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비율이 약 4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캐나다 통계청, 1993 ; Du Mont & Myhr, 2000 : 1109에 재인용).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중 90% 이상이 신고를 기피하고 있어(신성대, 2009 : 28) 그 신고율은 아주 낮은 편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움, 남들이 안 믿어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경찰 및 재판절차에 대한 공포심, 형사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조국, 2002 : 192). 아울러 여성의 처신에 대한 사회적 비난, 조사과정에서 사생활의 노출, 인격적 모멸감 등 2차적 피해를 의식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황현락, 2007 : 394). 이처럼 형사사법과정에서 겪을지도 모르는 이차피해에 대한 두려움,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공포심, 형사사법체계를 통한 정의 구현의 불확실성과 불신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범죄를 신고하는 여성의 비율이 아직도 낮은 뿐 아니라, 단계별로 많은 사건이 사라지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a, 2007 : 496). 경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사건의 70%가 소실되는 등 높은 소실률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유럽과 북미에서 성폭력 사건의 높은 소실률은 오랜 동안 사회적 관심사가 되어 왔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1).

성폭력범죄의 낮은 신고율과 높은 소실률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근 들어 성폭력 수사 및 기소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이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성에게 보다 나은 처우를 보장하고 가해자의 유죄판결이 증가되기를 희망했지만, 현실은 의도한 결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u Mont & Myhr, 2000 : 1111). 영국에서 1/3 ~ 1/2의 기소는 유죄판결로 귀결되지만, 대다수의 강간과 성폭력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며, 신고된 사건의 대부분 법정으로까지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0).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가해자들은 가벼운 형량을 받거나 심지어 죄를 사면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a, 2007 : 495). 성폭력 범죄 신고와 관련된 새로운 경찰 정책과 실천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실률을 제어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Lea, 2007 : 495).

더군다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처우방식에 있어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경우 성폭력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강간 검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고소결정에 있어 경찰대에 따라 차이가 있고 정책의 실행이 파편적(patchy)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1).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그리고 사건의 소실률에서 발견되는 편차는 정책의 변화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경찰 개인의 태도와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견되는 편차는 경찰대의 조직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으며, 조직적 또는 문화적 요인이 개별 수사관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1). 영국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강간과 성폭력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 대해 검토한 결과(Stern, 2010 ; Brown, 2011),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는 실행 과정에 있음”이 밝혀졌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1에 재인용). 많은 나라에서 실행된 입법적 개혁이 형사사법 결과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법은 변화되었지만,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Lonsway & Archambault, 2012 : 159).

우리나라에서도 성폭력범죄의 신고율과 기소율이 낮은 현실 속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책으로 2012년 성폭력관련 법 개정(2013. 6. 19 시행)을 통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전면 폐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개정이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부담과 책임으로 돌려왔던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도 하지만, 사생활의 보호를 바라는 피해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해 피해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부정적이라는 평가도 존재한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91). 친고죄의 폐지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원치않는’ 형사사법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차피해’의 위험에 더욱 노출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성폭력을 신고하는 피해자가 직면하는 도전은 자신의 이야기를 반복진술하고 범죄를 떠올리는 것,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한 두려움, 낯선 이들 앞에서 증언해야 하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Gaines & Wells, 2017 : 560-561). 이러한 점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원치 않아도 형사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사실과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차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될 수도

있다.

한편 경찰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수사진행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성폭력 신고와 그에 따르는 무고인지 수사의 증가로 업무 과중을 경험할 수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284-287).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 이후 아직 수사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진행 거부 시 처리방식, 고소 관련 처리방식, 합의 시 기소유예에 대한 고려 등에 있어 많은 편차가 발견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286-294).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찰의 성폭력범죄 수사와 피해자를 대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를 방지하고 공정성(justice)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회적 요구(책무)에 직면해 있다. 수사단계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이차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행동과 이러한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대두된다.

경찰의 수사행동이 체포와 기소로 연결되는 강간의 수와 유죄판결로 귀결되는 사건의 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Fiest et al., 2007)는 경찰의 범죄 수사방식이 형사사법결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1). 수사단계에서의 소실률이 75%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에 있어 경찰의 의사결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0). 성폭력 사건의 주요한 의사결정 지점(key decision making point)에서 성폭력 사건의 소실률(attri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많은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검찰, 판사가 성폭력과 피해여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태도, 그리고 이런 태도가 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Du Mont & Myhr, 2000 : 1132).

의사결정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찰이 피해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성폭력을 마음 속에서 어떻게 범주화하는 지는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할지 또는 안할지 등 수사행동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2).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범주화하는 지 살펴보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이 경찰의 의사결정과 실제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Venema, 2016 : 890).

성폭력 사건의 법적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형사사

법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강간신화(rape myth)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Du Mont & Myhr, 2000 : 1110).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의 성폭력만을 “진짜” 성폭력으로 간주하게 하며, 뒤늦은 신고,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Venema, 2016 : 875). 이처럼 경찰의 성폭력 정의(defini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경찰의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Venema, 2016 : 876). 강간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특정 유형에서 벗어나는 성폭력의 진술(allegation)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편견과 의심은 경찰의 의사결정과 수사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성폭력 사건의 소실을 가져온다(Barrett & Hamilton - Giachritsis, 2013 : 202).

한편, 수사행동은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성립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증거확보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데 수사를 집중할 수도 있다. 철저한 수사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복지를 고려하거나 피해자를 민감하게 대하는 능력이 저하되기도 한다(Maier, 2008 : 789). 경찰이 수사와 피해자보호 중 어디에 임무의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 수사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임무인식 역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영향받을 수 있다. 성폭력사건의 근거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얼마나 수집해야 하는지는 성폭행당한 여성에 대한 경찰의 인식에도 전적으로 달려 있다(Du Mont & Myhr, 2000 : 1131).

사건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경찰은 사건의 적법성과 피해자 신빙성을 의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이 성폭력과 피해여성에 대해 지니는 편견은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형적 “진짜 강간(real rape)”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피해여성에 대한 편견과 의심으로 인해 경찰은 피해신고를 무고라고 간주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거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다. 증거확보가 어려울수록, 피해자의 저항과 상해여부, 합의하의 성관계라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더욱 고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지닐수록 피해여성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질문을 하거나 과도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이명신·양난미, 2012 : 160-161).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영향을 주며, 임무인식(수사 vs 피해자보호·지원)에 따라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경찰의 수사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강간신화 수용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며 경찰의 수사행동과 피해자에 대한 처우(treatment)와 어떤 연관을 지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찰의 태도와 행동 간의 연결고리(link)를 검토할 필요 있다(Sleath & Bull, 2012 : 659). 수사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실천의 책무성(accountability of institutional practices)을 위해 경찰이 책임을 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Renner, Alksnis & Park, 1997 : 101 ; Du Mont & Myhr, 2000 : 1132에 재인용).

이와 같은 이유에서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경찰의 임무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임무인식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의식이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을 위한 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 목적

1. 남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 임무인식, 공정성 실천, 이차피해 수사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
2.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은 공정성 실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공정성 실천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II. 문헌 연구

1.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사건의 낮은 신고율과 높은 소실률은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바라는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성폭력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는 형사사법체계가 성폭력에 대해 보이는 반응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신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Du Mont, Miller & Myhr, 2003 : 469). 널리 수용된 강간신화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이 비난당하고 존중되지 못한 채 낙인찍히고, 불신과 트라우마를 겪거나 자신의 신고가 결국은 기각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린다(Venema, 2016 : 874).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25-36%가 신고 이후 사건을 중단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Murphy et al., 2014 : 145), 그 이유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이 “진짜 성폭력”의 전형에 맞지 않아 가해자가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Du Mont & Myhr, 2000 : 1114). 이처럼 “진짜 성폭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특정 유형의 강간피해자가 경찰에 더 많이 신고한다는 사실은 경찰이 실제로 일어나는 강간의 전체의 범주(full range of the reality of rape)를 보지 못하고 보다 전형적인 강간 사례를 더 많이 보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며, 경찰의 강간에 대한 전형적 인식을 확인하거나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Sleath & Bull, 2012 : 661-662).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절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다수의 요인은 우리의 일반적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강간신화로부터 나오며(Du Mont, Miller & Myhr, 2003 : 469), 강간신화 수용(rape myth acceptance)은 완력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해의 흔적이 없거나, 반격 및 저항을 통해 거부의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강간이 아니라고 보게 만든다(Sleath & Bull, 2012 : 654). 진짜 강간 희생자의 전형적 이미지를 종종 받아들이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완벽한 희생자”라는 렌즈를 사용하여 판단하고(Jordan, 2008 : 699), “진짜 강간(real rape)”의 전형에 맞지 않는 신고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의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Lonsway & Archambault, 2012 : 152). 강간통념에서 나오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편견은 경찰의 “의심의 문화(culture of skepticism)”를 고려할 때(Kelly, 2010 : 1352),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경찰의 의심으로 이어진다(Sleath & Bull, 2012 :

659). 상당수의 경찰이 강간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강간신고를 접수하는 동안 그들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분류와 체포에 대한 결정에 드러난다(Jordan, 2011; Rich & Seffrin, 2012; Rich & Seffrin, 2014: 139에 재인용).

강간신화에 토대를 둔 성폭력에 대한 편견, 그로 인한 의심의 정도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와 상호작용하는 동안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된 성폭력 사건이 무고라고 인식될 때 가벼운 질문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사건을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unfounded)이라고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Venema, 2016: 891). 또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그로 인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의심은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없었다고('no crime' allegation) 결론짓거나, 표준이하의 수사진행(substandard investigation)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잠재적 증거가 상실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202). 경찰이 일상적 업무에서 사용하는 재량권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추적하거나 사건의 성립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은 수사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Venema, 2016: 876).

강간신화 수용도가 경찰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강간신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사건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낮게 평가하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최대한 경미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가해자에 대해 가벼운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지선·김정희, 2011: 91). 강간신화를 수용한 남성 경찰의 40%, 여성 경찰의 34%는 여성 피해자가 성관계를 갖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바꾼 것, 즉 무고("she lied")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leath & Bull, 2012: 659). 장미정(2005: 41-49)의 연구에서 경찰관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태도, 수사관행, 언행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진, 2006: 61-62). 강간신화 수용정도에 따라 사건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저항정도 등 성폭력사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질문 등 파악하려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며, 강간신화 수용도가 높을수록 이차피해유발 질문의 오류율이 높고, 이차피해를 야기하는 질문에 대한 분별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미정·조은경, 2004: 135-136). 그러나 강간신화 수용도와 수사행동에 있어 남녀 경찰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경찰은 대체로 남성보다 강간신화 수용도가 낮으며, 피해자와의 면담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을 지니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보다

나은 공식진술서를 이끌어 내는 데 필요한 공감(empathy)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ich & Seffrin, 2014 : 139).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소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피해자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은 성폭력 사건의 신고에서부터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는 경찰의 태도와 행동까지 형사사법체계의 모든 단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2. 경찰의 임무인식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에 대한 개인적 태도와 피해자 신빙성에 대한 인식은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절차적 반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이러한 의사결정에 대한 태도는 조직 내 요구에 의해 제한된다(Venema, 2016 : 893). 마틴(Martin, S. L., 2005)은 목적, 임무, 정책과 절차가 사법조직과 관계자들이 성폭력관련 업무를 사회적으로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조직적 문화가 경찰의 인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Venema, 2016 : 876에 재인용). 경찰이 지니는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행동(demeanor) 속에 표현되며(Stephens & Sinden, 2000 : 537), 수사행동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경찰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뿐 아니라, 경찰의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받는다.

1) 수사 임무

모의수사과정을 통해 성인여성의 강간 주장(allegation)에 대한 경찰의 의사결정과 임무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Barrett & Hamilton - Giachritsis, 2013 : 206), 경찰은 철저한 수사의 필요를 1차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피해자의 복지(welfare)에 대한 필요는 2차적인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의무는 철저한 수사라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 피해자를 정보의 원천으로 보고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화하고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며, 피해자를 법의학 증거의 원천, 즉 “범죄의 장면”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06-210). 한편 피해자의 복지와 지원의 필요는 2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경찰에게 피해자 복지는 피해자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도의 맥락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었다(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11-213). 피해자의 복지를 수사의 중심에 놓지 않거나, 수사의 필요보다 피해자의 복지를 우위에 둘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수도 있음을 포함하여, 모든 합리적 진위조사(enquiry)를 해야 하는 법적 요구사항과 상충되기 때문이다(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1996 ; Barrett & Hamilton-Giachritsis, 2013 : 214). 피의자의 체포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신빙성과 증거 확보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수사 의무를 최우선시하게 된다(Venema, 2016 : 893).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피해자의 신빙성을 수사하는데 중점을 두는 가운데 피해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의 민감성 부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만족한다는 점이 다른 선행연구(Jordan, 2004 등)에서도 종종 지적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Barrett & Hamilton - Giachritsis, 2013 : 214).

2) 돌봄업무(care work)와 법적업무(legal work)

경찰의 일차적 임무는 신고접수 즉시 출동하여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확보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의 의무이다(김용세·김재민, 2006 : 448). 그러나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제 2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차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 및 유관기관에 연계조치 등 피해자 보호·지원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기대된다(경찰청, 2002 : 81-83, 94-97). 이처럼 ‘피해자중심으로’ 경찰수사의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 경찰의 임무도 수사라는 기존의 임무 외에, 보호·연계, 피해자보호 및 이차피해방지의 임무가 추가되었다(이명신·양난미, 2011 : 165).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고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경험을 인정받고 가해자의 처벌과 사과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으로(Regehr & Alaggia, 2006 : 43),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바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사법과정에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형사사법절차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하는 법적업무(legal work)를 필요로 한다. 법적업무는 민사, 형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Kolb, 2011 : 1560), 사법적 과정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을 수반한다(Gaines & Wells, 2017 : 556).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말

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안전계획(safety plan) 수립 등을 통해 개인적·정서적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Kolb, 2011 : 1560),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형사사법과정, 지역사회의 반응을 정서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업무(care work)도 필요로 한다(Gaines & Wells, 2017 : 556).

현재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 알 권리, 형사절차 참여권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들도 어느 정도 법적업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찰들은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이러한 과정을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돌봄업무를 자신의 임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믿어준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공감적 반응과 사건 진행에 대한 정기적 의사소통 등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Maddox, Lee & Barker, 2011 : 113), 경찰의 경청, 공감 및 의사소통 등 돌봄업무도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돌봄업무는 피해자와의 라포형성과 의사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협력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처럼 경찰은 범죄사건의 수사 외에도, 피해자와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법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고 있다.

3. 이차피해

1)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

성폭력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대다수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체포와 신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는 형사사법체계에 의한 대우에 만족을 표현하지 않으며 도리어 ‘이차피해’를 경험한다(Venema, 2016 : 873).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성폭력 사건을 고소할 때 경찰이 이에 회의적이거나 불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경찰에게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시켜야 하고 경찰에 의해 마치 검문당하는 듯이 느꼈다고 보고하고 있다(Young, 1983 : 46 ; Jordan, 2008 : 703에 재인용).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경찰의 침해하는 듯한(invasive) 질문, 비난적 태도, 반복진술 중용, 형사수사를 진행에 대한 거절, 민감성 결여 등을 통해 이차피해(재희생화)를 경험한다(Maier, 2008 : 793). 형사사법체계로부터의 비난과 낙인적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게 되는 고통을 ‘이차피해’

라고 부르며(Maier, 2008 : 787), 캠벨 외(Campbell et al., 2001)는 절반 이상의 성폭력 희생자가 형사사법체계와의 접촉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다(Maier, 2008 : 787에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차피해가 무려 5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성대, 2009 : 32)¹⁾.

2) 이차피해 수사행동

성폭력 피해자가 이차피해를 겪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차피해가 초래되기도 한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으며, 범죄발생에 대한 판단을 위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류병관, 2006 : 395-396). 경찰은 성폭력 사건의 사건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공격적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마치 증인처럼 대하게 된다(Martin, 2005 : 54 ; Maier, 2008 : 789에 재인용).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피해자를 의심하는 듯한, 공격적인 질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감을 주는 수사방식 등으로 이차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범죄현장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범행당시의 상황에 대한 신문, 피해진술 반복, 가해자와의 대질신문 등으로 피해상황의 회상이나 고통스런 아픔을 재연하는 조사과정은 피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심각한 이차적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황현락, 2007 : 388 ; 신성대, 2009 : 34).

성폭력범죄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침해의 대표적 형태를 조사한 결과²⁾,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피해의 형태는 너무도 다양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처우(비난과 피해자 유발 의심),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보호 결여(공개 장소에서의 수사,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 무시, 신변보호 부족, 수사관련 정보 제공 부족 등), 과잉수사(반복진술, 잦은 소환, 지나친 조사, 대질신문), 합의중용(가해자 옹호 및 합의 중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형사절차를 겪는 동안 발생하는 이차피해는 캠벨(Campbell, 2006 : 39)이 지적하였듯이 피해자에 대한 비난적 처우뿐 아니라 민감성 결여(insensitive)로 정의할 수 있다.

1) 한국성폭력상담소(2002)의 수사·공판 단계별 이차피해 사례분석 결과, 수사과정에서 52.2% 발생, 수사·공판 과정 이외 21.1%, 공판과정 11.7%로 보고되고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이차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신성대, 2009 : 32).

2) 서울지검에 보관 중인 수사·재판 기록에 수록된 피해자진술조서(50건)(정현미, 2000 : 175-185)와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연구 결과(이재희·이기숙, 2009 : 167-170)를 토대로 함.

또한 캠벨과 라자(Campbell & Raja, 2005 : 97)는 수사과정에서 경찰 자신은 직무수행 상 “일상적인”(routine) 또는 “필요한” 일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이차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찰은 성폭력사건의 구성요건을 확보해야 하는(build a good case) 의무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채 공격적 질문을 퍼붓기도 한다(Maier, 2008 : 789). 경찰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 피해자의 민감성에 대한 욕구를 희생시키는 경향이 있으며(Maier, 2008 : 793), 이러한 수사의 특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인해 이차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당연하고 일상적인 임무로 여기는 수사행동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피해를 유발하는 수사행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차피해유발 수사행동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이차피해와 공정성 실천 : 동전의 양면

성폭력 피해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지기를 원한다(Regehr & Alaggia, 2006 : 43). 성폭력 피해자의 입장에서 완벽한 경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믿어주고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며 피해자의 사생활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Jordan, 2008 : 715). 성폭력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상을 알아보고 그들의 욕구를 돌봐주길 기대하며, 가장 상처받기 쉬운 곤경에 처하여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 정중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기대한다(Laxminarayan, 2013 : 145, 155).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무시되기 일쑤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오히려 무례하다고 보일 수 있는, 침해적인(intrusive) 수사과정을 겪게 될 수도 있으며(Laxminarayan, 2013 : 155), 형사사법과정에서 피해자 비난, 민감성이 결여된 무감각한 논평,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언행 등의 부정적 반응과 부당한 처우를 통해 이차피해를 겪기도 한다(Laxminarayan, 2013 : 146).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나 형사사법절차 및 사건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 주지 않을 때에도 이차피해가 초래된다(이미경, 2013 : 51). 이차피해는 피해자가 경찰과의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부정적 인간적 처우로 인한 불공정성을 인식할 때 발생되며(Laxminarayan, 2013 : 154), 형사사법과정에서 발생하

는 이러한 이차피해를 락스미나라얀(Laxminarayan, 2013 : 146)은 ‘상호작용불공정성’(interactional injustice)으로 개념화하였다.

‘상호작용공정성’은 절차와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 또는 제 3자에 의해 존엄성을 지닌 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정도를 말하는 ‘대인관계공정성’(interpersonal justice)과, 왜 이런 식의 절차가 이용되는지, 결과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도를 말하는 ‘정보공정성’(informational justice)로 이루어져 있다(Laxminarayan, 2013 : 146 ; 이명신 외, 2015 : 55에 재인용).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처우’ 또는 ‘공정한 대우’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존중될 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Reb et al., 2006 : 33).

많은 연구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존중과 정보에 관심이 많으며, 정보의 결여는 불만족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Wemmers, Van der Leeden & Steensma, 1995 ; Johnson, 2007 ; Shapland, Willmore & Duff, 1985 ; Laxminarayan, 2013 : 146에 재인용). 또한 경찰이 피해자의 선호에 따라 행동할 때, 즉 경찰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 피해자는 절차에 더 만족하고 이를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ickman & Simpson, 2003 : 612-613). 폭력범죄의 피해자 1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오프(Orth, 2002)의 연구는 형사사법절차의 결과에 대한 만족과 그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은 피해자들이 겪는 이차피해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Regehr et al., 2008 : 107-110에 재인용).

이처럼 형사사법과정에서 인격적 존중, 피해자의 선호도 반영,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형사사법결과에 대한 만족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욕구와 기대를 보다 많이 고려하도록 정의(justice)를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의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부여하고, 고소(complaint)와 관련된 통제력 수단을 부여하고 존중심을 지니고 신중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McGlynn, Westmarland & Godden, 2012 :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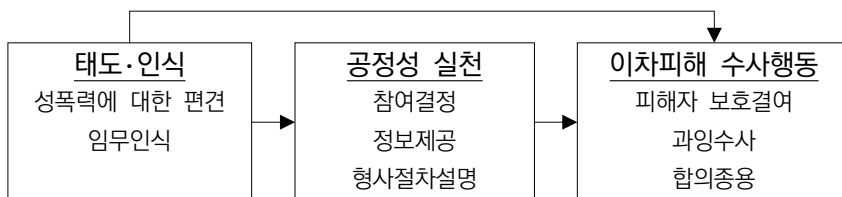
성폭력피해자는 비난, 의심받는 등 이차피해를 가장 많이 겪는다는 점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할 때 존중을 통한 대인관계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더욱 중요하다(Laxminarayan, 2013 : 146). 또한 대인관계공정성과 더불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경찰이 지원서비스와 사건의 진척사항을 알려주는 임무에 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Laxminarayan, 2013 : 155).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사건 진행상황을 충분하게 인지함으로써 인격권에 대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요건이 될 뿐 아니라, 절차적 참여권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신주호, 2010 : 25). 절차와 추이과정(progress)에 대한 설명, 이용가능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때, 사람들은 의사결정이 공정한 절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Laxminarayan, Henrichs & Pemberton, 2012 : 261 ; 이명신 외, 2015 : 56에 재인용).

이처럼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절차공정성(procedural justice)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절차공정성은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자신의 목소리 증대,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된 정보의 정확성 증진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Joy & Witt, 1992 ; Fields, 2002 : 164에 재인용). 형사사법과정에서 이차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바라는 공정하고 적절한 처우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공정성’은 인간적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 피해자의 욕구와 선호도 존중, 정확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설명 제공,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와 의사결정권 존중 등을 포괄한다(이명신 외, 2015 : 56).

5. 가설적 연구모형 개발

문헌연구를 토대로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경찰이 지니는 태도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종속 변인인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문헌을 토대로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중용’의 세 요인으로 조작화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공정성 실천은 문헌을 토대로 하여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세 요인으로 조작화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응답률 및 연구대상자

경찰의 성폭력 수사행동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부산 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찰관 1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목적표본추출법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찰 중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 즉 현재 성폭력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수사경험이 있는 경찰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1~3월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114부(응답률 95.0%)를 회수하였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하고 11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 도구

1) 성폭력에 대한 편견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사회에 팽배한 강간통념을 토대로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해 지니는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 태도를 의미한다. ‘편견’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명신 외(2015)가 개발하여 사용한 ‘편견’ 척도(6문항)를 사용하였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측정한 ‘편견’의 Cronbach’s α 는 .832였다.

2) 임무인식

‘임무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경찰 본연의 임무인 수사 외에,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담당하도록 기대되는 임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임무인식’(4문항)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연계 업무를 제시하고 이를 경찰의 임무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임무인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으며, ‘임무인식’의 Cronbach’s α 는 .863였다.

3) 공정성 실천

공정성 실천은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

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대우를 하고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기회 제공,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을 통해 공정성을 실천하기 위해 취하는 수사행동을 말한다. 공정성 실천을 측정하기 위해, 정보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개념을 토대로 이명신 외(2015)가 개발하여 사용한 공정성 척도를 사용하였다³⁾. ‘참여결정’(4문항)은 피해자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보제공’(5문항)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형사절차설명’(2문항)은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참여결정’이 .906, ‘정보제공’이 .892, ‘형사절차설명’은 .761이었다.

4) 이차피해 수사행동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경찰이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겪게 할 수 있는 수사행동을 말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에 대한 문헌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자가 이차피해 수사행동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차피해 수사행동은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종용’의 3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피해자보호결여’(6문항)는 수사에만 치중하여 피해자의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결여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정도를 말한다. ‘과잉수사’(6문항)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사를 진행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합의종용’(5문항)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설득, 권유,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높은 점수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 는 ‘피해자보호결여’는 .878, ‘과잉수사’는 .837, ‘합의종용’은 .935였다.

3. 자료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검토하였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경찰의 수사행동

3) 공정성 척도는 Ullman(2000)의 SRQ(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에서 3문항, 이봉한·김윤주(2012)의 연구에서 1문항, 이명신 외(2015)가 개발하여 사용한 6문항으로 구성함(이명신 외, 2015 : 60-61 참조).

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을 구성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모형검증 방식은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는지 검토하는 측정모형 검증과 잠재변수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이론모형 검증의 2단계 방식을 사용하였다(Anderson & Gerbing, 1988; 배병렬, 2007: 212에 재인용). 실제 분석에 사용된 표본수가 112개로 적은 편이어서 일부 문항들에선 첨도(kurtosis)가 높게 나타나는 등 비정규성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의 표본오차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들을 유의하게 판정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최대우도법(ML)기반 검정법과 더불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기반 검정법도 적용하였으며, 보수적인 판정 기준을 사용하였다⁴⁾. 모형적합도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표본크기에 대한 민감성,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18과 AMOS 18을 이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경찰의 업무 특성

연구에 참여한 경찰 중 63.1%는 남성, 36.9%는 여성이었고,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38.4%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경찰청의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6.8%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성폭력 피해자전담조사팀’과 ‘여성청소년계’는 각기 16.9%, 13.4%였다. 성폭력 관련 업무 기간은 1개월에서 132개월로 편차가 컸으며, 평균 22.46개월로 약 2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관련 업무수행 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3.62(5점 척도)로 보통보다 높은 편이었다.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성폭력사건의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68.5%로 가장 많았고, ‘수사에 시간이 너무 걸리거나 수사할 사건이 너무 많음’과 ‘수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라는 응답은 각각 18.0%, 8.1%였다.

4) 최종모델에 포함된 대부분의 경로는 양쪽 검정에서 유의확률 0.01보다 낮은 경우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표 1〉 경찰의 업무특성

| 구분 | 특성 | | | 합계 |
|---------------|------------------|-----|--------------|------------|
| 성별 | 남성 | | 70(63.1) | 111(100.0) |
| | 여성 | | 41(36.9) | |
| 소속 | 성폭력전담수사팀 | | 43(38.4) | 112(100.0) |
| | 성폭력특별수사대 | | 30(26.8) | |
| | 성폭력피해자전담조사팀 | | 19(16.9) | |
| | 여성청소년계 | | 15(13.4) | |
| | 기타 | | 5(4.5) | |
| | 최소값 | 최대값 | 평균(표준편차) | |
| 연령 | 26 | 57 | 38.9(6.67) | 111(100.0) |
| 성폭력관련 업무기간(월) | 1 | 132 | 22.46(21.91) | 108(100.0) |
| 성폭력관련 업무 어려움 | 2 | 5 | 3.62(.738) | 112(100.0) |
| 어려운 이유 | 진위여부 판단의 어려움 | | 76(68.5) | 111(100) |
| | 사건 너무 많고 시간소요 많음 | | 15(18.0) | |
| | 수사에 전문성 부족 | | 9(8.1) | |
| | 수사에 대한 열의 낮음 | | 0(0.0) | |
| | 기타 | | 6(5.4) | |

2. 성폭력에 대한 태도와 수사행동

1) 성폭력에 대한 편견

경찰관이 지니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지만, ‘명확히 거부의를사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2.9%로 가장 높았다. ‘저항한 흔적이 없는 경우’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28.6%로 높은 편이었으나, 반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5.2%로 가장 낮았다. 한편, ‘데이트 중’ 발생하거나, 또는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28.6%, 24.1%~18.8%로 나타났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및 저항 흔적이 없는 경우 경찰은 성폭력의 진위여부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친밀하거나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동의성(거부 의사 표현) 여부를 둘러싼 의심과 편견이 아직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성폭력에 대한 편견

(단위 : 빈도, %)

| 내용 | 전혀 | 별로 | 다소 | 상당히 | 아주많이 |
|---|--------------|--------------|--------------|--------------|------------|
|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 51 (45.5) | 40 (35.7) | 16 (14.3) | 4 (3.6) | 1 (.9) |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였다면 이는 합 의된 성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 37 (33.0) | 48 (42.9) | 22 (19.6) | 5 (4.5) | 0 (0.0) |
| 데이트하다가 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 38 (33.9) | 42 (37.5) | 24 (21.4) | 7 (6.3) | 1 (.9) |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면 성폭력으로 볼 수 없다. | 20 (17.9) | 44 (39.3) | 31 (27.7) | 16 (14.3) | 1 (.9) |
| 눈에 띄는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성폭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65 (58.0) | 30 (26.8) | 14 (12.5) | 3 (2.7) | 0 (0.0) |
| 피해자가 저항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 | 43 (38.4) | 37 (33.0) | 22 (19.6) | 9 (8.0) | 1 (.9) |

2) 임무인식

경찰의 임무인식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전문직과의 연계·협력 또는 유관 기관에 피해자 인도·의뢰를 경찰의 임무로 인식하는 정도(97.3%~100%)는 아주 높은 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돌봄을 경찰의 임무로 인식하는 정도(92%)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 임무인식

(단위 : 빈도, %)

| 내용 | 전혀 | 다소 | 상당히 | 아주많이 |
|-------------------------|--------|----------|----------|----------|
|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피해자 인도, 의뢰 | 3(2.7) | 13(11.7) | 49(44.1) | 46(41.4) |
| 피해자의 상처 치유 및 심리적 지원 | 9(8.0) | 28(25.0) | 42(37.5) | 33(29.5) |
| 피해자보호를 위해 상담소, 보호시설에 의뢰 | 1(0.9) | 23(20.7) | 45(40.9) | 41(37.3) |
| 성폭력관련 다전문직과 연계 및 협력 | 0(0.0) | 32(28.6) | 43(38.4) | 37(33.0) |

3) 공정성 실천

성폭력수사과정에서 경찰이 공정성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참여결정’과 ‘정보제공’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0%~98.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는 상대적으

로 낮은 편이었고, ‘재판 일시 및 참여방법을 알려주거나’, ‘법정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비율은 각기 66.1%, 52.6%에 불과했다. 즉, ‘형사절차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1/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공정성 실천

(단위 : 빈도, %)

| 내용 | | 전혀 | 별로 | 다소 | 상당히 | 아주많이 |
|---------|---|--------------|--------------|--------------|--------------|--------------|
| 참여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 입장에 대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 0 (0.0) | 2 (1.8) | 16 (14.4) | 53 (47.7) | 40 (36.0) |
|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돕는다 | 0 (0.0) | 2 (1.8) | 14 (12.6) | 59 (53.2) | 36 (32.4) |
|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다 | 0 (0.0) | 2 (1.8) | 22 (19.8) | 47 (42.3) | 40 (36.0) |
| |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함께 상의한다 | 0 (0.0) | 10 (9.0) | 26 (23.4) | 43 (38.7) | 32 (28.8) |
| 정보제공 | 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 0 (0.0) | 3 (2.7) | 14 (12.5) | 40 (35.7) | 55 (49.1) |
| | 피해자가 대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0 (0.0) | 2 (1.8) | 20 (17.9) | 43 (38.4) | 47 (42.0) |
| |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다 | 0 (0.0) | 6 (5.4) | 32 (28.6) | 35 (31.3) | 39 (34.8) |
| | 피해자에게 모든 수사과정, 절차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해준다 | 0 (0.0) | 2 (1.8) | 20 (17.9) | 57 (50.9) | 33 (29.5) |
| | 피해자에게 왜 이러한 수사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설명을 제공하였다 | 0 (0.0) | 2 (1.8) | 33 (29.5) | 43 (38.4) | 34 (30.4) |
| | 피해자에게 재판의 일시 및 장소, 참여방법 등에 대해 알려준다 | 9 (8.0) | 29 (25.9) | 35 (31.3) | 21 (18.8) | 18 (16.1) |
| 형사절차 설명 | 피해자가 법정에서 취해야 할 행동이나 태도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 18 (16.1) | 35 (31.3) | 26 (23.2) | 22 (19.6) | 11 (9.8) |

4) 이차피해 수사행동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사행동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보호결여’와 ‘과잉수사’를 하는 비율은 8.1%~70.6%로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결여’ 중 ‘여성단체 동행자가 있으면 수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8%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피해의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33.9%로 높았다. 또한 ‘피해자보호 보다 사건해결을 위한 사실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18.0%였다. 성폭력피해의 사실관계 확인을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 하거나, 여성단체 동행자가 있으면 수사에 방해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3이상으로 나타나, 수사우선주의에 입각해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감정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책무 또는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찰이 약 1/4~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경찰이 피해자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이차피해 수사행동

(단위 : 빈도, %)

| 내용 | | 전혀 | 별로 | 다소 | 상당히 | 아주많이 |
|-----------------|--|--------------|--------------|--------------|--------------|------------|
| 피해자 보호 결여 |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의 책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다 | 49 (43.8) | 30 (26.8) | 25 (22.3) | 8 (7.1) | 0 (0.0) |
| |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경찰이 해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일이다 | 49 (43.8) | 37 (33.0) | 16 (14.3) | 8 (7.1) | 2 (1.8) |
| | 성폭력 수사 시 여성단체나 동행자가 있으면 도리어 공정한 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 | 38 (33.9) | 35 (31.3) | 25 (22.3) | 13 (11.6) | 1 (0.9) |
| |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는 것이 도리어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한다 | 48 (42.9) | 44 (39.3) | 14 (12.5) | 5 (4.5) | 1 (0.9) |
| |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배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 33 (29.5) | 41 (36.6) | 25 (22.3) | 10 (8.9) | 3 (2.7) |
| | 경찰은 성폭력피해자 보호보다는 사건해결을 위한 사실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 | 61 (55.0) | 30 (27.0) | 12 (10.8) | 8 (7.2) | 0 (0.0) |
| | | | | | | |
| 과잉 수사 | 사실 확인 및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여러 번 경찰 출두를 요구하기도 한다 | 33 (29.5) | 52 (46.4) | 22 (19.6) | 4 (3.6) | 1 (0.9) |
| | 공개된 장소에서 수사할 경우 필요하다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37 (33.3) | 29 (26.1) | 33 (29.7) | 10 (9.0) | 2 (1.8) |
| | 공정한 수사를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대면도 어쩔 수 없다 | 50 (44.6) | 43 (38.4) | 14 (12.5) | 3 (2.7) | 2 (1.8) |
| | | | | | | |

| 내용 | | 전혀 | 별로 | 다소 | 상당히 | 아주많이 |
|----------|--|--------------|--------------|--------------|--------------|------------|
| | 정확한 수사를 위해 피해자에게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다 | 9 (8.0) | 24 (21.4) | 47 (42.0) | 25 (22.3) | 7 (6.3) |
| | 수사가 중요할 뿐 공개된 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진행한다 | 84 (75.7) | 18 (16.2) | 6 (5.4) | 3 (2.7) | 0 (0.0) |
| |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수사를 한다 | 71 (63.4) | 32 (28.6) | 5 (4.5) | 4 (3.6) | 0 (0.0) |
| |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람이거나 애인인 경우 좋게 해결하라고 말한다 | 83 (74.1) | 21 (18.8) | 5 (4.5) | 3 (2.7) | 0 (0.0) |
| 합의 중용 |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 피해자에게 합의하라고 권한다 | 84 (75.0) | 15 (13.4) | 7 (6.3) | 5 (4.5) | 1 (0.9) |
|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도 경찰의 중요 역할이다 | 69 (61.6) | 25 (22.3) | 16 (14.3) | 0 (0.0) | 2 (1.8) |
| | 강간이 아닌 성추행, 성희롱인 경우에는 합의를 권하는 편이다 | 81 (72.3) | | 2 (1.8) | 2 (1.8) | 2 (1.8) |
| |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억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취하를 권유한다 | 81 (72.3) | 24 (21.4) | 2 (1.8) | 3 (2.7) | 2 (1.8) |
| | | | | | | |

‘과잉수사’ 행동 중에서, ‘당시 정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본다’는 응답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공개장소에서 수사시 동료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응답도 40.5%로 높은 편이었다. ‘필요시 피해자에게 여러번 경찰출두를 요구한다’는 24.1%였고, ‘대면 수사를 한다’는 17%~8.1%로 편차가 컸다. ‘과잉수사’ 행동 중에서 당시 정황에 대한 세세한 질문, 반복출두 요구, 공개석상에서 자문 요청 등의 과잉수사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경찰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사행동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이차피해를 주는 행동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합의중용’을 하는 비율은 5.4%~16.1%로 낮은 편이었다. ‘강간이 아닌 성추행’, ‘증거불충분’, ‘아는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합의중용’을 하는 경우는 각기 5.4%, 6.3%, 7.2%로 아주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경찰의 역할’로 생각하는 비율이 11.5~16.0%로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3. 성별에 따른 차이 비교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볼 때, 남녀 경찰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5점 척도)은 1.963으로 낮은 편이었고, 피해자지원·연계 ‘임무에 대한 인식’(4점 척도)은 3.087로 높은 편이었다. 공정성 실천의 정도(5점 척도)는 ‘정보제공’(4.105)과 ‘참여결정’(4.085)은 높은 편이었으나, ‘형사절차설명’(2.924)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차피해 수사행동(5점 척도)를 살펴볼 때, ‘피해자보호결여’(1.937), ‘과잉수사’(1.971), ‘합의종용’(1.430)도 낮은 편이었다.

〈표 6〉 성별에 따른 차이 비교

| 변수 | | 평균 | | | df | t | Prob>t |
|-----------|---------|-------------|-------|-------|---------|-------|--------|
| | | 전체(SD) | 남성 | 여성 | | | |
| 태도·인식 | 편견 | 1.963(.667) | 2.050 | 1.817 | 102.767 | 1.9 | .057 |
| | 임무인식 | 3.087(.676) | 3.178 | 2.921 | 106 | 1.904 | .060 |
| 공정성 실천 | 참여결정 | 4.085(.698) | 4.051 | 4.146 | 108 | -.689 | .492 |
| | 정보제공 | 4.105(.682) | 4.080 | 4.151 | 109 | -.527 | .599 |
| | 형사절차설명 | 2.924(1.08) | 3.007 | 2.768 | 109 | 1.117 | .266 |
| 이차피해 수사행동 | 피해자보호결여 | 1.937(.768) | 1.981 | 1.886 | 108 | .623 | .534 |
| | 과잉수사 | 1.971(.648) | 2.042 | 1.866 | 104.972 | 1.503 | .136 |
| | 합의종용 | 1.430(.713) | 1.500 | 1.317 | 109 | 1.304 | .195 |

4.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문헌을 토대로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고, 이러한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검증을 위해 변인의 총 문항이 4개 이하인 ‘임무인식’(4문항), ‘참여결정’(4문항), ‘형사절차설명’(2문항)은 개별 문항을 측정변수로 사용하였고, 총 문항이 5~6개인 ‘편견’,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종용’은

각 변인별로 3개의 문항꾸러미(item parcels)를 만들었고, ‘정보제공’은 2개의 문항꾸러미를 만들어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224)=332.043$ 이었고($p<.001$), 좋은 적합도(CFI=.941, TLI=.927, IFI=.942, RMSEA=.066)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변인들의 비표준화 계수(요인부하량)은 최소 .819에서 최대 1.00로 유의수준 .001에서 모두 유의미하였으며, 표준화 계수도 .687~.97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잠재변수들 하나의 개념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 잠재변수별로 집중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집중타당도는 하나의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다수의 관측변수들의 일치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평균분산추출(AVE)이 0.5 이상이고, 개념신뢰도(CR)가 0.7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우종필, 2012).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수들의 평균분산추출(AVE)이 0.605~0.834에 있고, 모든 잠재변수들의 개념신뢰도(CR)가 0.761~0.937에 있으므로, 본 척도의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판별타당도는 잠재변수들이 서로 구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잠재변수 간에 낮은 상관을 보이면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 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들의 절대 값이 관련 잠재변수들의 AVE의 제곱근보다 작으면 판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우종필, 2012).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상관계수들의 절대값이 AVE의 제곱근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본 척도의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7> 측정모델의 타당도 검증

| | 집중 타당도 | | 상관계수 | | | | | | | | \sqrt{AVE} |
|---|--------|-------|---------------|--------------|---------------|---------------|---------------|--------------|--------------|----|--------------|
| | CR | AVE | 편견 | 임무 | 참여 결정 | 정보 | 형사 절차 | 피보결 | 과잉 | 합의 | |
| 1 | 0.847 | 0.651 | 1 | | | | | | | | 0.807 |
| 2 | 0.859 | 0.605 | -0.131 | 1 | | | | | | | 0.778 |
| 3 | 0.907 | 0.710 | -0.403 | 0.397 | 1 | | | | | | 0.843 |
| 4 | 0.861 | 0.757 | -0.448 | 0.418 | 0.710 | 1 | | | | | 0.870 |
| 5 | 0.761 | 0.615 | -0.103 | 0.432 | 0.234 | 0.464 | 1 | | | | 0.784 |
| 6 | 0.842 | 0.640 | 0.784 | -0.204 | -0.376 | -0.423 | -0.299 | 1 | | | 0.800 |
| 7 | 0.853 | 0.659 | 0.636 | -0.077 | -0.500 | -0.297 | -0.097 | 0.713 | 1 | | 0.812 |
| 8 | 0.937 | 0.834 | 0.715 | 0.057 | -0.359 | -0.322 | 0.200 | 0.663 | 0.775 | 1 | 0.9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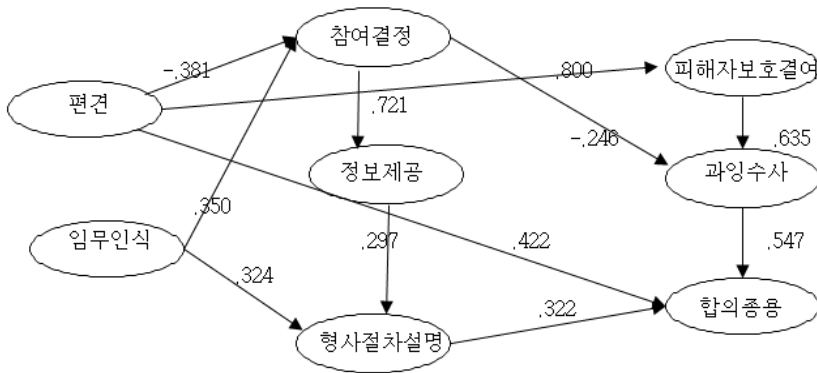
주: 진한 글씨는 상관계수의 유의성을 의미함($p<0.05\sim p<0.001$).

2) 이론모형 검증

(1) 최적의 이론모델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론모델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포화모델을 준거모델(reference model)로 삼았다. 포화모델의 검증 결과 $\chi^2(df=224, N=112)=332.043$ 이었고($p<.001$), 좋은 적합도($CFI=.941$, $TLI=.927$, $IFI=.942$, $RMSEA=.066$)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이론모형이 수용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포화모델에는 27개의 경로 중 14개의 유의하지 않은 경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변인 간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의하지 않은 14개의 경로를 가장 약한 관계부터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이론모델들을 비교함으로써, 최적의 이론모델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우도법과 부트스트래핑의 검정 결과에서 모두 유의하다고 판정된 경로만을 포함한 최적의 이론모델이 선정되었다($\chi^2=365.473$, $N=112$, $df=240$, $p<.001$). 최적 이론모델의 적합도($CFI=.931$, $TLI=.921$, $IFI=.932$, $RMSEA=.069$)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1개의 유의미한 경로가 발견되었다(그림 2). 이 최종적인 최적의 이론모델을 준거모델로 사용한 포화모델($\chi^2=332.043$, $df=224$, $CFI=.941$, $RMSEA=0.066$)과 비교할 때, 이론구조모델의 비교기준인 비교부합치(CFI) 등 적합도에 있어 크게 변화가 없으나, 유의하지 않은 16개의 경로가 제거되었고 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최종적인 최적 모델은 11개의 유의한 경로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 변수 간에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다.

최종적인 최적의 모델에 포함된 이론 변수 간 직접효과를 살펴볼 때, ‘편견’은 ‘참여결정’($\beta=-.381$, $p<.001$)에 부적 영향을, ‘피해자보호결여’($\beta=.800$, $p<.001$)와 ‘합의 종용’($\beta=.42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인식’은 ‘참여결정’($\beta=.350$, $p<.001$)과 ‘형사절차설명’($\beta=.324$, $p<.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결정’은 ‘정보제공’($\beta=.721$,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정보제공’은 ‘형사절차설명’($\beta=.297$, $p<.05$)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결정’은 ‘과잉수사’($\beta=-.246$, $p<.01$)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형사절차설명’은 ‘합의종용’($\beta=.322$,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보호결여’는 ‘과잉수사’($\beta=.635$, $p<.001$)에 정적 영향을, ‘과잉수사’는 ‘합의종용’($\beta=.547$, $p<.001$)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편견’과 ‘임무 인식’ 간 상관관계($r=-.136$, $p=.211$)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최적의 이론모델

3)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의 역할

최종 모델에 포함된 유의한 경로 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다음과 같다(<표 8>). ‘편견’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편견’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결여’에 강력한 직접효과(.800)를 지닌다. 한편 ‘편견’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601)는 ‘참여결정’을 통한 간접효과($-.381 \times -.246 = .0937$)와 ‘피해자보호결여’를 통한 간접효과($.800 \times .635 = .508$)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편견’이 ‘합의종용’에 미치는 총효과(.725)는 직접효과(.422)와 간접효과(.303)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견’은 ‘참여결정’과 ‘과잉수사’를 통해 ‘합의종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381 \times -.246 \times .547 = .0512$), 동시에 ‘편견’은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을 통해 ‘합의종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381 \times .721 \times .297 \times .322 = -.0262$). 한편 ‘편견’은 ‘피해자보호결여’와 ‘과잉수사’를 통해 ‘합의종용’에 간접효과를 미친다($.800 \times .635 \times .547 = .2778$). ‘편견’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살펴 볼 때, 공정성 실천을 통한 간접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면, ‘임무인식’은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종용’에 직접 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무인식’은 ‘참여결정’을 통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350 \times -.246 = -.0861$)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무인식’이 ‘합의종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 | 효과 | 편견 | 임무 인식 | 참여 결정 | 정보 제공 | 형사 절차 | 피해자 보호결여 | 과잉 수사 |
|-------------|----|-------|----------|----------|----------|----------|-------------|----------|
| 참여결정 | 직접 | -.381 | .350 | | | | | |
| | 간접 | 0 | 0 | | | | | |
| | 총 | -.381 | .350 | | | | | |
| 정보제공 | 직접 | 0 | 0 | .721 | | | | |
| | 간접 | -.275 | .253 | 0 | | | | |
| | 총 | -.275 | .253 | .721 | | | | |
| 형사절차 설명 | 직접 | 0 | .324 | 0 | .297 | | | |
| | 간접 | -.081 | .075 | .214 | 0 | | | |
| | 총 | -.081 | .399 | .214 | .297 | | | |
| 피해자 보호결여 | 직접 | .800 | 0 | 0 | 0 | 0 | | |
| | 간접 | 0 | 0 | 0 | 0 | 0 | | |
| | 총 | .800 | 0 | 0 | 0 | 0 | | |
| 과잉수사 | 직접 | 0 | 0 | -.246 | 0 | 0 | .635 | |
| | 간접 | .601 | -.086 | 0 | 0 | 0 | 0 | |
| | 총 | .601 | -.086 | -.246 | 0 | 0 | .635 | |
| 합의총용 | 직접 | .422 | 0 | 0 | 0 | .322 | 0 | .547 |
| | 간접 | .303 | 0 | 0 | .095 | 0 | .347 | 0 |
| | 총 | .725 | 0 | 0 | .095 | .322 | .347 | .547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및 논의

1) 성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태도 및 수사행동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수사하는 남녀 경찰의 태도 및 인식, 수사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 경찰의 ‘참여결정’과 ‘정보제공’의 정도가 조금 더 높았다는 점에서, 여성 경찰은 남성보다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성 경찰은 여성에 비해 ‘편견’, ‘임무인식’, ‘형사절차설명’, ‘피해자보호결여’, ‘과잉수사’, ‘합의중용’ 등의 정도가 조금 더 높았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위주의 공식적 직무 수행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적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먼저 ‘편견’의 영향력을 살펴볼 때, ‘편견’이 증가될수록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중용’이 증가되는 반면, ‘참여결정’은 감소된다. ‘임무인식’이 증가될수록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은 증가되지만, ‘임무인식’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에는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실천의 3 하위영역 간 관계를 살펴보면, ‘참여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정보제공’도 높아지며, ‘정보제공’ 정도가 높을수록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의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수사’가 감소되는 반면, ‘형사절차설명’의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중용’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3 하위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해자보호결여’ 정도가 높을수록 ‘과잉수사’도 증가되었으며, ‘과잉수사’의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중용’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결여’에 ‘편견’은 강력한 직접 효과를 지니는 유일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편견’이 높을수록 ‘피해자보호결여’ 행동이 증가된다. ‘과잉수사’ 행동에는 ‘피해자보호결여’가 강력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참여결정’도 직접적 영향을 지

난다. 즉, ‘피해자보호결여’가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증가되며, 반면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감소된다. ‘합의중용’에는 ‘편견’, ‘형사절차설명’, ‘과잉수사’가 직접적 영향력을 미친다. 즉 ‘편견’, ‘형사절차설명’, ‘과잉수사’가 증가될수록 ‘합의중용’이 증가된다.

‘편견’과 ‘임무인식’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의 매개 역할은 기대와 달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견’이 ‘참여결정’을 통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동시에 ‘편견’이 각기 다른 두 경로를 통해 ‘합의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더욱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무인식’이 ‘참여결정’을 통해 ‘과잉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도 작은 편이었으며, ‘합의중용’에는 유의한 간접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실천 증진과 이차피해 방지를 위한 개입 방안

1)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변화를 위한 특화 교육

본 연구 결과 ‘편견’은 ‘피해자보호결여’와 ‘합의중용’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강력한 요인인 동시에 ‘참여결정’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것이 공정성 실천을 증가시키고 이차피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은 사회에 팽배한 강간신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폭력 사건의 진위 판단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의 진실성과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며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무고와 구분하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의 위험성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그 동안 이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비해 느리게 변화되고 있다(Du Mont & Myhr, 2000 : 1131). 최근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도 ‘성폭력 피해자중심’의 수사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115-117). 이러한 수사체계 변혁에 따르는 경찰 임무의 변화가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본 연구에서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임무인식’이 증진되면 피해자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의 결과는 ‘임무인식’의 증진만으로는 경찰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임무인식’은 공정성 실천의 일부인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을 증가시키지만, 이러한 ‘임무인식’이 공정성 실천의 노력을 통해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감소로 이어지기에는 그 영향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경찰에게 수사 외의 다른 임무(보호연계, 정서적 지원 등)를 수행하도록 강조하는 것 만으로는 경찰의 업무수행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단지 경찰 임무의 확대와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행동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에서 실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찰관의 성폭력 수사능력 강화를 위해 성폭력 역동, 피해자와의 면접방식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었지만, 피해자 욕구파악, 면접 및 정보·의뢰 제공 기술에서는 향상을 보였으나, 경찰관이 지닌 태도 및 편견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onsway, Welch & Fitzgerald, 2001; Patterson, 2004: 274에 재인용). 단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나 편견 타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교육만으로는 경찰관들이 지닌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피해자에 대한 민감성 증진을 위한 의식전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경찰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편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의 현장실습을 통해 사전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동을 통한 학습” 접근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공정성 실천의 강화를 위한 수사체계 확립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사법과정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자신의 정당함이 밝혀지길 수 있도록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바램을 지니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가 지니는 이러한 욕구는 이차피해의 감소와 공정성 실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공정성 실천이 증가될수록 이차피해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차피해와 공정성 실천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이명신 외, 2015: 73).

본 연구에서 경찰의 ‘참여결정’과 ‘정보제공’의 실천 정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형사절차설명’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볼 때, ‘참여결정’이 증가될수록 ‘과잉수사’는 감소되지만, ‘형사절차설명’은 ‘합의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과정에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할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스런 상황에서 ‘과잉수사’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참여결정’을 증가시킴으로써 ‘과잉수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절차설명’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중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형사절차설명’의 제공이 도리어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행동 실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가해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경찰 자신이 원만한 합의를 경찰의 역할로 보는 경우 ‘합의중용’의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찰이 형사절차에 대해 설명해 줄수록 ‘합의중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실천의 증가가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정보제공’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참여결정’과 ‘형사절차설명’은 각기 ‘과잉수사’와 ‘합의중용’에 상반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성 실천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이 매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공정성 실천의 매개 역할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찰관들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정성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지 못하거나, 공정성 실천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참여결정의 기회, 정보 및 형사절차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아직은 경찰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임무로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를 이차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은 이차피해 수사행동의 감소는 물론, 공정성 실천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이차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수사절차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보호를 구할 권리(반복 질문, 대질 신문, 공개장소 수사, 사생활 침해하는 질문을 피하도록), 피해자의 정보청구

권, 절차참여권의 보장 등(정현미, 2000 : 195-199)을 공정성 실천을 위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하고 의무화하는 한편, 그 실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의 수사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사행동(이차피해 수사행동 및 공정성 실천)의 자가사정체계 구축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찰은 자신의 수사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인지하고 이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이차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수사행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보호절여’와 ‘과잉수사’를 하는 비율은 8.1%~70.6%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이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고르지 않음을 보여주며, 이차피해에 해당하는 수사행동을 하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리어 성폭력 수사에 필요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찰의 비율이 높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상적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차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 수사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자신의 수사행동을 스스로 사정함으로써 수사행동(이차피해 수사행동과 공정성 실천)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경찰 조직 내에서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차피해 수사행동 사례, 수사절차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공정성 실천의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를 토대로 이차피해 수사행동·공정성 실천 사정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책무성있는 수사 실천과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이차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성 실천과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자가사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기적인 자가진단을 통해 경찰의 수사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중책무(법적업무와 돌봄업무)에 대한 지원

본 연구에서 경찰들이 피해자보호·연계를 자신의 임무로 수용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참여결정’, ‘정보제공’, ‘형사절차설명’을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형사사법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법적업무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피해자

의 치유 및 정서적 지원을 자신의 임무로 보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상당수의 경찰이 피해자 감정에 대한 배려나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경찰들은 피해자들이 형사사법과정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돌봄업무를 아직은 경찰의 임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게 신고하는 초기단계에서 경찰이 의사소통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감을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형사사법 과정을 더 오래 견딜 수 있게 되어 기소율도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 이해 증진을 위한 돌봄 업무가 피해자와 경찰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Maddox, Lee & Barker, 2011 : 117). 이런 점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이차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담당해야 하는 임무의 영역이 수사 외에도 법적업무와 돌봄업무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공정성에 대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 경찰이 담당하도록 기대되는 법적업무와 돌봄업무는 외견상 경찰의 수사 임무와 상충되는 듯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책무가 잘 수행될 때, 피해자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잘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와 이중책무의 병행이 필요하다. 수사외의 이중 책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이중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을 위한 부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피해자와 라포형성 및 효과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갈등해결기술 등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다른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연계협조의 중요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성인 여성피해자를 위한 전담팀 및 표준화된 수사지침의 필요성

경찰에 성폭력특별수사부서가 설치·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로, 수차례의 변화를 거치면서 2013년에 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별수사대(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수사)와 일선경찰서에 성폭력전담수사팀(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수사)이 설치되면서 성폭력전담수사체계의 틀이 마련되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120-122). 그러나 경찰서 내 성폭력전담수사팀은 인력 운용 등의 문제로 지속 운영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기존의 실종 및 소년수사와 관련된 인력과 통합되어 여성청소년수사팀으

로 전환되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122).

경찰의 잦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전담 수사팀의 해체로 말미암아, 성인 여성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이차피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여성청소년계로 전환되면서 성폭력 외에도 가정 폭력, 실종업무까지도 추가적으로 담당하게 되어 성폭력 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장다혜·박학모·장응혁, 2015 : 280 : 363). 더군다나 친고죄 폐지이후 표준화된 수사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성폭력 수사에 편차와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성인 여성피해자를 위한 전담수사팀의 운영과 표준화된 수사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수사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이차피해 수사행동이 어떤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이 이차피해 수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 실천의 역할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경찰청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경남·부산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경찰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경찰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경찰의 이차피해 수사행동과 공정성 실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 작업 및 경험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이차피해 수사행동과 공정성에 대한 문헌을 토대로 연구자가 두 개념을 개념화하였고 조작화 과정을 거쳐 직접 척도를 개발하였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내용타당성을 검토하였고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하였지만, 경찰로부터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로 인해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의 신뢰도(.761~.935)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러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임무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이전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척도의 신뢰도

(.832~.863)가 높은 편이었지만, 역시 후속연구에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넷째, 피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지닐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편견, 임무인식, 공정성 실천, 이차피해 수사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문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청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와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인해 표본의 크기가 112명으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한 정규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우도법과 부트스트래핑의 통계기법을 사용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찰청(2002).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매뉴얼. 서울: 범
신사.
- 김용세·김재민(2006). “초등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 제18권 제1호. 435-464.
- 류병관(2006).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 방지 대책”. 법과 정책
연구. 제6권 제1호. 395-421.
- 박지선·김정희(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2호. 77-96.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신성대(2009). 성폭력 범죄 수사에 관한 인권침해 실태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호(2010). 경찰수사절차상 성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충남
대학교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9-54.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 모델 개념과 이해(Amos 4.0-20.0 공용). 서울: 한나
래아카데미.
- 이명신·양난미(2011). “남성경찰관의 성폭력 수사행동(적극적 수사와 이차폭력)
결정요인: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1
호. 159-185.
- _____ (2012).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모델: 남성 경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3권 제2호. 149-197.
- 이명신·양난미·김점희·문유정(2015). “이차피해태도, 공정성 실천, 다전문직간
관계가 연계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관련 경찰과 상담사를 중심으로”. 젠더
와 문화. 제8권 제1호. 43-85.
- 이미경(2013).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2차피해의 심층구조”. 여성학연구. 제23
권 제2호. 43-75.
- 이봉한·김윤주(2012). “범죄피해자 진술청취 시 공감적 조사기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217-239.
- 이재희·이기숙(2009). “2차적 성폭력의 발생과 피해정도: 부산성폭력상담소 사례
를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제20집. 157-189.
- 장다혜·박학모·장응혁(2015).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이후 수사실무의 변화
실태 및 개선방안: 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 장미정(2005).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2차 피해 유발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정·조은경(2004).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2차 피해 유발 질문의 사용과 수사관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강간통념과의 관계”.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9-147.
- 정현미(2000).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162-200.
- 조국(2002).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방안”. 형사정책. 제14권 제2호. 185-210.
- 최유진(2006).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황현락(2007).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성인권 보호방안”.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제7집 제2호. 375-406.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23.
- Barrett, E. C. & Hamilton-Giachritsis, C.(2013). The Victim as a Means to an End : Detective Decision Making in a Simulated Investigation of Attempted Rape. *Journal of Investigative Psychology and Offender Profiling*, 10, 200-218.
- Brown, J.(2011). We Mind and We Care about but Have Things Changed? Assessment of Progress in the Reporting, Investigating and Prosecution of Allegations of Rap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7(3), 263-272.
- Campbell, R.(2006).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the Legal and Medical Systems : Do Rape Victim Advocates Make a Differ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 30-45.
- Campbell, R. & Raja, S.(2005). The Sexual Assault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Female Veterans : Help-Seeking Experiences with Military and Civilian Social System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 97-106.
- Campbell, R., Wasco, S., Ahrens, C., Sefl, T. & Barnes, H.(2001). Preventing the “Second Rape” : Rape Survivors’ Experiences with Community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 1239-1259.

Criminal Procedure and Investigations Act : Code of Practice(1996).

Du Mont, J., Miller, K-L. & Myhr, T. L.(2003). The Role of Real Rape and Real Victim Stereotypes in the Police Reporting Practices of Sexually Assaul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9(4), 466-486.

Du Mont, J. & Myhr, T. L.(2000). So Few Convictions : The Role of Client-Related Characteristics in the Legal Processing of Sexual Assaults. *Violence against Women*, 6(10), 1109-1136.

Fiest, A., Ashe, J., Lawrence, J., McPhee, D. & Wilson, R.(2007). *Investigating and Detecting Recorded Offences of Rape*(Home Office Online Report 18/07).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20110218135832/http://rds.homeoffice.gov.uk/rds/pdfs07/rdsolr1807.pdf>에서 2012.5.13. 인출.

Fields, D. L.(2002). *Taking the Measure of Work*,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Inc.

Gaines, D. C. & Wells, W.(2017). Investigators' and Prosecutors' Perceptions of Collaborating With Victim Advocates on Sexual Assault Casework. *Criminal Justice Policy Review*, 28(6), 555-569.

Hickman, J. & Simpson, S. S.(2003). Fair Treatment or Preferred Outcome? The Impact of Police Behavior on Victim Reports of Domestic Violence Incidents. *Law & Society Review*, 37(3), 607-633.

Johnson, I. M.(2007). Victims' Perceptions of Polic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cid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35, 498-510.

Jordan, J.(2004). *The Word of A Woman? Police, Rape and Belief*. Basingstoke, England : Palgrave Macmillan.

_____(2008). Perfect Victims, Perfect Policing? Improving Rape Complainants' Experiences of Police Investigations. *Public Administration*, 86(3), 699-719.

_____(2011). Here We Go 'Round the Review Go-Round : Rap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 Are Things Getting Worse, Not Better?.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7, 234-249.

Joy, V. L. & Witt, L. A.(1992). Delay of Gratification as A Moderator of the Procedural Justice-Distributive Justice Relationship. *Group*

- & *Organization Management*, 17(3), 297-308.
- Kelly, L.(2010). The (In)credible Words of Women : False Allegations in European Rape Research. *Violence Against Women*, 16, 1345-1355.
- Kolb, K. H.(2011). Victim Advocates' Perception of Legal Work. *Violence Against Women*, 17(12), 1559-1575.
- Laxminarayan, M., Henrichs, J. & Pemberton, A.(2012).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Justice : A Comparative Study of Victims in the Netherlands and New South Wales. *European Journal of Criminology*, 9(3), 260-275.
- Laxminarayan, M.(2013). Interactional Justice, Coping and the Legal System : Needs of Vulnerable Victims.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19(2), 145-158.
- Lea, S. J.(2007). A Discursive Investigation into Victim Responsibility in Rape. *Feminism & Psychology*, 17, 495-514.
- Lonsway, K. A., Welch, S. & Fitzgerald, L. F.(2001). Police training in sexual assault response : Process, outcomes and elements of chang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 695-730.
- Lonsway, K. A. & Archambault, J.(2012). The "Justice Gap" for Sexual Assault Cases :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Reform. *Violence Against Women*, 18(2), 145-168.
- Maddox, L., Lee, D. & Barker, C.(2011). Police Empathy and Victim PTSD as Potential Factors in Rape Case Attrition. *Journal Police Crime Psychology*, 26(2), 112-117.
- Maier, S. L.(2008). I Have Heard Horrible Stories : Rape Victim Advocates' Perceptions of the Revictimization of Rape Victims by the Police and Medical System. *Violence Against Women*, 14(7), 786-808.
- Martin, P. Y.(2005). Rape Work : *Victims, Gender, and Emotions in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Context*. New York, NY : Routledge.
- McGlynn, C., Westmarland, N. & Godden, N.(2012). 'I Just Wanted Him to Hear Me : Sexual Violence and the Possibilities of Restorative Justice. *Journal of Law and Society*, 39(2), 213-240.
- McGregor, M. J., Du Mont, J., White, D. & Coombes, M. E.(2009).

- Examination for Sexual Assault : Evaluating the Literature for Indicators of Women-Centered Care.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30(1-2), 22-40.
- Murphy, S. B., Edwards, K. M., Bennett, S., Bibeau, S. J. & Sichelstiel, J.(2014). Police Reporting Practices for Sexual Assault Cases in Which “The Victim Does Not Wish to Pursue Charg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1), 144-156.
- Orth, U.(2002). Secondary Victimization of Crime Victims by Criminal Proceeding. *Social Justice Research*, 15(4), 31-325.
- Patterson, G. T.(2004). Evaluation the Effects of Child Abuse Training on the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of Police Recruit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14(4), 273-280.
- Reb, J., Goldman B. M., Kray, L. J. & Cropanzano, R.(2006). Different Wrongs, Different Remedies? Reactions to Organizational Remedies after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Injustice. *Personnel Psychology*, 59(1), 31-64.
- Regehr, C. & Alaggia, R.(2006). Perspectives of Justice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Victims & Offenders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1), 33-46.
- Regehr, C., Alaggia, R., Lambert, L. & Saini, M.(2008).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Canadian Criminal Courts. *Victims & Offenders : An International Journal of Evidence-based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3(1), 99-113.
- Renner, K. E., Alksnis, C. & Park, L.(1997). The Standard Social Justice as a Research Process. *Canadian Psychology*, 38, 91-102.
- Rich, K. & Seffrin, P. M.(2012). Police Interviews of Sexual Assault Reporters : Does Rape Myth Acceptance Matter?. *Violence and Victims*, 27, 263-279.
- _____ (2014). Birds of a Feather or Fish out of Water? Policewomen Taking Rape Reports. *Feminist Criminology*, 9(2), 137-159.
- Shapland, J., Willmore, J. & Duff, P.(1985).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rookfield, VT : Avery Publishing Company.
- Sleath, E. & Bull, R.(2012). Comparing Rape Victim and Perpetrator

- Blaming in a Police Officer Sample : Differences Between Police Officers With and Without Special Training.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9(5), 646-665.
- Statistics Canada(1993). *The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Survey Highlights*. Ottawa : Author.
- Stephens, B. J., Sinden, P. G.(2000). Victims' Voices : Domestic Assault Victims' Perceptions of Police Demean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 534-547.
- Stern, V.(2010). *The Stern Review: A Report by Baroness Vivien Stern CBE of An Independent Review into How Rape Complaints Are Handled by Public Authorities in England*. London : Home Office.
- Ullman, S. E.(2000),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Reactions questionnair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4, 257-271.
- Venema, R. M.(2016). Police Officer Schema of Sexual Assault Reports : Real Rape, Ambiguous Cases, and False Repor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5), 872-899.
- Wemmers, J. A., Van der Leeden, R. & Steensma, H.(1995). What Is Procedural Justice : Criteria Used by Dutch Victims to Assess the Fairness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Social Justice Research*, 8(4), 329-350.
- Young, W.(1983). *Rape Study: A Discussion of Law and Practice*. Volume 1. Wellington :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Department of Justice.

Abstract

The Determinants of Investigation Behaviors (Justice Practice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Police Officers Who Work for the Sexual-Assault Victims : Prejudices against Sexual-Assault and Perception of Mission

Myung Shin Lee*·Gyemin Le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determinants of investigation behaviors of police officers, and to explore the role of justice practice in the secondary victimization process. A hypothetical model which explains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rejudice against sexual assault, perception of mission, 3 types of justice practice(support for victim'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vision of the available service informations,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3 kinds of secondary victim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lack of sensitivity to victim, excessive investigation, pressure to compromise with the offender) was developed. Using the data collected from 112 police officers who work for the sexual-assault victims in Kyungnam and Pusan, the model was tested by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s a result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ollowing were found : ①Prejudices increased the lack of sensitivity to victim and the pressure to compromise, while decreased the support for victim's participation ; ②Perception of mission increased the support for victim's participation and the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③Support for victim's participation increased the provision of service informations, and the provision of service informations increased the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④Support for victim's participation decreased the excessive investigation, while the explan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s

* First Author :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Professor, Dep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creased the pressure to compromise; ⑤Lack of sensitivity to victim increased the excessive investigation, and the excessive investigation increased the pressure to compromise.

Based on the findings, ①the specialized training program to reduce the prejudices against sexual-assault, ②the investigation system to mandate the justice practice; ③the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to help the police officers to assess their own investigation behaviors, ④the special supports for the police officers' dual missions, and ⑤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unit and the standardized guideline of investigation for the adult female victims were suggested as the ways to prevent from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nd to increase the justice practice for the police officers who work for the sexual-assault victims.

Keywords : sexual-assault victims, prejudice against the sexual-assault, perception of mission, justice practice, secondary victimization of police investigation